

도이모이 20주년 맞는 베트남

- WTO가맹으로 새로운 발전 추진

베트남은 2007년 1월 11일 150번째로 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 WTO)에 정식으로 가맹하였다. 2006년 12월에는 지난 1986년 12월의 공산당 제6회 대회에서 채택(採擇)된 “도이모이(刷新)정책”이 2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 동안 순조롭게 시장경제화(市場經濟化)가 진행되어 최근 5년 동안은 경제성장률도 7% 이상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섬유산업에서도 어패럴제품의 봉제거점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일본의 섬유산업에게도 “중국+one”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섬유산업의 전망에 관하여 현지에서 취재한 자료를 소개한다.

◎ 불안재료 보이지 않고, 당분간 고도성장 계속

베트남은 2006년도 실질GDP(Gross Domestic Product; 國內總生産)성장률이 목표인 8%를 넘어 8.2%를 달성하였고, 2005년의 8.4%를 밑돌기는 하였으나 5년 연속 7%를 넘어 고도성장하고 있어, 정부는 2007년에도 8.2~8.5%의 고도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적어도 앞으로 5~6년 동안 현재의 경제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경제발전을 불안(不安)하게 하는 요인이 눈에 안된다. 베트남의 경제전반에 대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물으면, 호치민에 사무소가 있는 많은 일본계 주재원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분명히 말한다.

그 이유로서, 사회체제가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 제일 크다. 약 8,350만명의 인구 중 킨족(京族)이 약 90%를 차지하고, 종교도 대승불교(大乘佛敎)

가 약 80%를 차지하는 등 불안정요소는 매우 적다. 국민들은 손재주가 있으며, 부지런하고 식자율(識字率)이 96%로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제국연합)에서는 두 번째로 높다.

사람들의 표정도 밝고 활기가 있어, 베트남의 명물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러쉬(rush)는 2년 전부터 일본메이커의 절반가격으로 중국메이커의 오토바이가 판매되어 한층 더 심해지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간선도로(幹線道路)를 쉴새 없이 대형차량이 지나다니어, 이 나라가 지금 바로 고도경제발전(高度經濟發展)의 길을 달리고 있음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 앞으로의 과제는 인재교육과 인프라

물론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반덤핑조치를 받은 사례 등을 참고로, 베트남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상업부(商業部)와 공업부(工業部)가 수출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하여 ① 수출가격 ② 수송면의 부정방지 ③ 수출량증가에 대한 관리의 3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 미국으로의 수출에 관한 체제를 만들고 있다.

또한 공장의 워커(worker)들이 우수하여도 매니저(manager)급의 인재는 거의 양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계 자본의 봉제공장은 라인리더(line leader)나 반장에 대학졸업자로 경험이 10년 정도의 사람을 채용하여도, 어느새 워커와 같은 수준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직 사회전체에 자본주의나 기업에 대한 개념이 보급되어 있지 않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측면이 하루 아침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도성장을 이룩하려면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991년의 중월국교회복(中越國交回復) 후 실질적인 시장경제가 시작된 지

15~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트남은 시장경제로 옮겨가는 도중인데, 시장경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고 도로, 항만, 공항, 금융시스템 등 사회적 인프라(infrastructure)가 정비되지 않았다. 섬유산업에서는 원료, 텍스타일, 부속자료 등을 베트남 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납기(納期)단축, 품질향상, 코스트절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베트남정부도 이들 과제를 잘 알고 있으며, 착실하게 이들 과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발전을 연구하면서 성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베트남은 앞으로 고도경제성장을 계속한다는 새로운 발전단계를 맞고 있으며 지나친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